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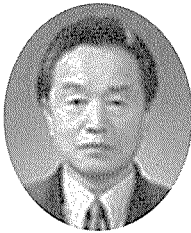
#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우리 도서관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북스타트 운동>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입>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 등 2003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올해도 이어져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우리 도서관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도서관 정책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도서관문화” 1월호에서는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 편집자 주

## 실문사형

- ① 귀하께서는 2004년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한도협 부산지구협의회  
박정길 회장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2004년 한국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란 문의를 접하고 보니 왠지 가슴이 답답한 것이,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이 떠오르지 않음은 시대와 사회의 끊임없는 역사적 실상과 변화하는 현실을 훤히 꿰뚫어보는 혜안과 선견지명이 부족한 탓일지도 모른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국의 도서관계는 양적, 질적 공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화시대의 제 현상과 추세에 걸맞게 적응하고 변모해 갈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회적으로 조감해 볼 때 일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러 분야처럼 도서관계는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 수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장서의 질과 양 모두 빈약한 실태이다. 그리고 1996년 말 이전까지 공공도서관장직을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법제화되었으나 입법 취지 구현은 반쯤이 실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침체와 무관심적 방치는 언제쯤 끝날 것이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및 사서의 제도적 배치는 어느 세월에 실현될 것인가?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의 무더기 실직상태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이제는 냉소적 표현인 '사서 고생하는 사서직업'의 관문을 뚫을 수도 없으니 아예 사서 고생할 기회도 없는 허망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2004년 도서관계에 대한 본인의 전망은 우울하고 비관적이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꾸어야 할 꿈이라면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지속적 도전과 변혁, 개선, 발전은 필요한 것이며 변화를 통한 내적 정비와 충실, 성장과 진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도서관 정보화 추진의 가속화와 정보사회의 제반 요구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활동의 신속화, 효율화 제고를 위한 정보환경의 조성과 구축에 경제적 투자와 정보 기술적 지원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우리 도서관계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넘쳐나는 정보의 범람을 잘 갈무리하는 효율적 관리와 적절하고도 신속한 활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봉사적 역할수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연락처 : 회장 박정길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Tel. 051-620-4312, Fax. 051-620-4201]

##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남정섭 회장



① 우선 기다리는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도 이동문고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도서관을 지향하였지만 2004년에는 특히 재소자, 소외 저소득층 자녀, 독거노인 등 배려가 더욱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학생 이용률에 비해 시민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준비 등 현실적인 필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소장 방식이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겠지만 문헌 자료의 소장 방식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이다. 문헌 자료가 낱알이 독자의 취향에 맞게 고급화·최적화 되어 가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민의 문화적 역량이 집결되는 종합 공간으로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지금도 미술 전시회를 중심으로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강좌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종합 전시공간,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2004년도의 대구·경북지구 한도협 정기총회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 5~6월중에 개최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는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도서관인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도서관의 발전과 사서의 자질 향상 및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는 2003년도에는 경북 안동(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04년의 학술세미나는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으나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연락처 : 회장 남정섭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장, 대구시 중구 문화길 28 Tel. 053-420-2700, Fax. 053-420-2750]



## 한도협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

### 김세빈 회장

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도서관 봉사영역은 물리적 공간내의 제한적인 자료제공방식에서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디지털자료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지역평생학습관, 평생교육기관 등이 상호협력체계를 활발하게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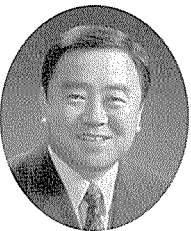
그리고 국민독서생활화의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에 더욱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초 · 중 · 고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 향상은 물론이고 독서생활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e-book), 원문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매체의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주5일제 근무가 도서관계에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 자칫 도서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더해져서 사서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도서관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② 우리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 · 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급 학교 교장 · 사서담당, 대학도서관 사서담당을 모시고 2004년 5월과 11월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광주 · 전남,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높이고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연락처 : 회장 김세빈 광주송정도서관 관장,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 Tel. 062-941-9411, Fax. 062-944-9411]



## 공공도서관협의회

### 임병수 회장

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5일 근무제가 연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들의 여가시간 활용형태는 주로 자아실현과 자기개발로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자료와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역할을 창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에 첨단 IT가 만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정보기술에 접근하고 또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 협의회는 2004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도서관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지역대표관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협력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내 학교도서관, 문고 등과의 연계 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2006년 IFLA 서울 대회 개최에 발맞추어 국제회의 경험 습득 및 선진 도서관 운영실태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화·전문화에 따른 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셋째, 특별연구위원회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계의 이론적·학문적 연구와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문제점을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토록 할 것이다. 유익하고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연락처 : 회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Tel. 02-595-6905, Fax. 02-590-0546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김승환 회장



① 급변하는 21세기는 정보기술의 습득에 따라 삶의 질과 사회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어서 문헌정보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필요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정보기술사회는 과거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는 다르게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고 보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도서관과 문헌정보관리 기관은 더욱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본다.

②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를 관리하는 현장이 활성화되어야 문헌정보학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을 양 축으로 하는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발표를 4회 실시하고, 문헌정보학의 우수한 연구논문들을 신속 정확하게 게재한 학회지를 4번 발행하여 문헌정보학이 더욱 발전하도록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의 이론을 실천한 현장 연구 결과가 학술발표는 물론 학회지 게재를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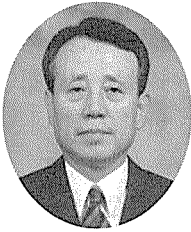
우리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실시하고 있는 학술상도 계속 시행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발전이 진일보하도록 하고,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학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회들 모두가 1년에 한 번은 같은 주제를 갖고 한 장소에 모여 공동학술발표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한다.

[연락처 : 회장 김승환 강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6-2 Tel. 011-311-5520, Fax. 031-2803-504, rrrcamp@chol.com]

## 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

### 한성택 회장



①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던 지난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하는 한해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당초 우리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도서관 인프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 확실함으로 금년도의 도서관계 전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우리 도서관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확산을, 정부의 도서관 육성책에 있어서도 점차 우선순위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의 성숙은, 도서관인들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의 증대를 의미함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② 최근 대학사회는 입학자원의 감소와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현실로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부심하여 왔다. 따라서 학과 특성화를 통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그간 이를 위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였다. 첫째,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전공코스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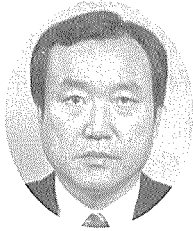
둘째, 실무사서 교육의 강화, 전산처리기술 및 언어 영역 교육의 강화, 독서지도 영역 교육의 특성화를 중심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실시하고 있다.

셋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졸업생들의 재교육 사업을 위한 심화과정의 설치와 이들의 권익 옹호에 필요한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올바른 정의 정립에 기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서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 2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생과 학부제하의 4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생과의 형평성에 맞는 내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 회장 한성택 송의여자대학 교수, 서울시 중구 예장동 8-3, Tel. 02-3708-9104, Fax. 02-3708-9106 ]



##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회

### 권재운 회장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인류사 그 어느 시기보다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21세기에 도서관계도 그 변화의 물살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일부 급진론자들은 앞으로 도서관은 더 이상 건물이 필요 없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였지만, 최근 전 세계 도서관계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인쇄매체와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전자매체자료들이 함께 공존하는 하이브리드도서관이라는 개념에 목표를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금년 우리 도서관계는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도서관의 디지털환경과 전통적인 도서관 매체를 조화롭게 접목시켜 진정한 하이브리드도서관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해야 한다.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전 국민의 지식과 정보의 산실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금년에는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제 전문 사서 양성과 같은 직원들의 능력 배양, 해외 및 국내를 망라한 미소장 국가 문헌 수집 활성화, 국가문헌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보존, 학술정보콘텐츠 다양화 및 정보서비스 강화, 도서관 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 회장 권재운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Tel. 02-5900-512, Fax. 02-5900-697]



## 서울시도서관연구회

### 임윤철 회장

①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학교도서관 지원정책 사업이 금년도 에는 서울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3년간 서울의 5개 공공도서관(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학교도서관 지원팀을 금년도 1월 1일부로 학교도서관 지원과로 정식 직제화되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는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가 공공도서관에도 단계별로 도입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대중이 여가를 선용할 시간에 사서들은 도서관봉사를 위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감내하여야 할 처지이므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사서들의 뜨거운 논란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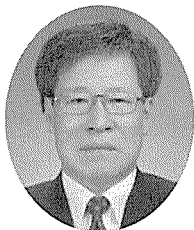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하고 보조적인 업무는 점차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거나 계약제 직원을 활용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기기(자동대출, 반납시스템)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서직원은 보다 전문성 있는 도서관 업무에 치중하여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도서관봉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② 금년도 서울시 도서관연구회에서는 각 분과 위원회 연구 및 발표, 학술세미나 회원 워크숍, 회원등반대회, 연구회지 21집 발간 등 기존의 사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거나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따른 기존 사업에 대한 변화도 조금은 예상된다.

[연락처 : 회장 임윤철 정독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서울시 종로구 북촌길 19, Tel. 02-20115-740, Fax. 02-722-5707]

## 울산공공도서관협의회

### 김영건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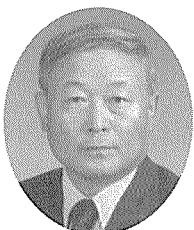
① 2030년은 기적의 도서관·병영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건립,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완료,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등 도서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한 해였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있길 바라며 2004년 한 해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시행,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 문화관광부내 도서관박물관과 폐지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어느 해 보다 변화가 많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② 2002년, 2003년에 개최된 울산지역공공도서관 평생교육 연합작품전을 2004년도에도 울산지역 4개 공공도서관이 연합하여 도서관 및 독서와 관련된 강좌를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도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또한 분기별로 갖는 정기모임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현안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운영과 발전에 힘쓰고자 한다.

[연락처 : 회장 김영건 울산중부도서관 관장, 울산시 중구 북정동 350-5, Tel. 052-211-3172, Fax. 052-245-4644]

## 강원도 도서관연구회

### 박광하 회장



① 2004년 한해는 정부의 주 5일제 도입으로 여유시간이 증가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각종 여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난 여가시간 활용을 공공도서관에서 보내게 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계는 장서확충 및 개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활동, 사서직의 계속교육에 중점을 두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강원도 도서관연구회에서는 도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

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연구회의 자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해로 정하여 전문강사, 교수 등을 초청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직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2003년도에 본 연구회가 발간한 「공공도서관업무편람」을 참고로 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인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연찬회 및 체육대회 등 친목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락처 : 회장 박광하 前 강릉평생교육정보관 관장,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51-2, Tel. 033-647-9903, Fax. 033-647-990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

### 담당 김기태

①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며,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우선시행 학교가 현재 26개에서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개로 늘어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이용이 확대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말에 운영하는 각종 강좌 개설 등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이 고3까지 확대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행평가,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1학교 1도서관을 구비하고, 학교도서관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적 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한다. 이를 위하여 1,200개 학교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를 위하여 정보화모델로 114개교에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며,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둘째, 도서관 활용 수업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48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셋째,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담 관리인력이 배치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전담 사서교사의 확충, 사서요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민간에서 시작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로 정착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

[연락처 : 담당 김기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Tel. 02-737-5947, Fax. 02-720-1686, gitae513@moe.go.kr]





##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 박광하 회장

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어 학교도서관은 상당히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이지만,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인식되어 도서관 이용자와 업무량은 상당히 증가되고 있으나 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미묘한 문제가 있어 자료구입비 등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활성화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는 공공도서관 발전과 도서관인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64명의 사서들이 만든 모임이다.

본 연구회는 회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매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회보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회의 후원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 정보화 세미나('02년 9월) 한국디지털 도서관 연합세미나('03년 4월)를 개최하였다.

2004년에도 정기총회 및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회보발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 회장 박광하 前 강릉평생교육정보관 관장,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51-2, Tel. 033-647-9903, Fax. 033-647-9905, parkjade@hanmail.net]

## 어린이도서연구회

### 이주영 이사장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우리 겨레의 아이들에게 우리 책을 읽히기 위해 어린이책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 책 출판에 대해서는 어린이책 출판 경향 분석 같은 소비자로서 출판 시장을 보다 가까이서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좋은 책을 가려 뽑아 권하기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할 것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해마다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린이책 문화를 둘러싼 도서관, 출판시장, 학교, 가정의 환경을 좀더 낮게 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여 바른 어린이책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올해는 이오덕 선생님의 삶과 문학, 교육을 정리해 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회의 독서문화위원회와 전국 동화읽어 어른 모임을 중심으로 책읽어주기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즐거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 활동은 가정에서 나아가 공부방,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도서관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고, 학교도서관이 바로 운영될 수 있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연구와 활동 내용을 한 자리에 펼치는 책문화 한마당을 개최하여 어

린이와 어른이 함께 어린이책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연락처 : 이사장 이주영,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2-18 Tel. 02-3672-4447, Fax. 02-3672-4449, childbook@childbook.org]

## 도서관운동연구회

### 김기문 대표

2003년 한해는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의 존재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였다. 모처럼 일기 시작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현명한 판단과 협력이 필요하다. 관중 이기주의와 편협한 사업의 전망은 자칫 잘못하면 도서관사업(운동)의 핵심가치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대승적 대처가 필요하다.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중시하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이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이다. 그래서 2004년은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였다. 또한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도서관정책 제안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공공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정책 제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처 : 대표 김기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96-285 101호, Tel. 02-878-2172, president@libmove.or.kr]

이 설문은 한도협 부산지구협의회장,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장, 한도협 광주·전남지구협의회장, 공공도서관협의회장,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장,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서지학회 회장,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회장,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전문대학문헌정보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작은도서관협회장,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대표, 학교도서관연구회장, 어린이도서관연구회장, 서울시도서관연구회장, 부산도서관연구회장,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광주사우회장, 광주빛고을사서회장,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경기도사서연구회장, 강원도도서관연구회장, 충청북도사서협의회,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전남공공도서관연구회장, 경상북도사서연구회장, 경남공공도서관연구회장, 제주도서관연구회장,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지식정보공유협의회, 도서관매일링리스트,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 새마을문고중앙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술정보교류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비블리아학회 등 총 49 곳에 보냈으며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